

코로나19에 상장사 실적 희비

# 언택트물결 타고 “好好” 식품·의약·반도체 수혜

집에 머무는 시간동안 식음료 소비 증가  
감염 우려로 병원대신 의약품 장기치방  
종이·목재업 소비재기업 호실적에 수혜

다수의 상장사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 유행)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역설적으로 수혜를 누린 곳도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충격 속에서 음식료품(156.33%), 의약품(110.13%), 종이·목재(52.14%) 등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바뀐 생활 패턴 때문이다.

음식료품의 경우 집에서 식음료 소비를 많이 한 덕에 식품기업이 잇따라 호실적을 낸 것이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19일 장중 52주 최저가(14만8000원)를 기록했으나 지금은 30만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의약품 업종은 만성질환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 많이 팔렸기 때문에 풀이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같은 만성질환자들이 전염병 감염 우려로 병원을 방문하는 대신 장기 처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의 1분기 영업이익은 각각 56.1%, 10.8% 증가했다.

종이·목재업은 생필품 등 소비재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호실적으로 낸 영향을 톡톡히 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곳곳에서 화장지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며 종이, 목재와 관련된 상품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며 택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택배에 사용되는 골판지 상자 물량이 증가하며 골판지 업체들도 수혜를 봤다.

반도체가 속한 전기·전자(-2.9%) 업종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평가다. 특히 전통적 우량주들의 활약이 돋보였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과 매출액 모두 전년 동기보다 3%, 6%대로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6조4473억원 달성하며 3.43% 증가했다. LG전자는 전년보다 21.07% 증가한 1조904억원을 기록했다.

한국전력의 실적개선도 눈에 띈다. 한국전력

(유가증권시장 2020연도 1분기 업종별 실적)

업종명	영업이익	
	2019년 1~3월	2020년 1~3월
건설업	10,843	12,127
기계	9,090	5,275
비금속광물	846	430
서비스업	49,026	19,064
섬유·의복	972	732
운수장비	22,485	22,614
운수차공업	6,591	-1,769
유통업	13,760	9,858
의료정밀	152	139
음식료품	5,318	7,755
의약품	2,424	4,037
전기·가스업	4,686	16,510
전기전자	88,913	85,142
종이·목재	1,042	1,447
철강·금속	17,753	10,537
통신업	9,218	9,039
화학	35,028	-12,751

/한국거래소

은 영업이익 4305억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6298억원 적자에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원민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원전 이용률 상승과 석탄 연료비단가 하락,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LNG 연료비단가 하락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서비스·유통 부문이 부진했던 반면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이나 생필품 관련 업종 등은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면서 업종별로 실적이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 유가폭락... 재고손실 급증 정·중·항 적자, 사상 최악

(정유) (중공업) (항공업)

석유제품 수요 감소·정제 마진 부진  
SKI노베이션, 가장 큰 적자 기록  
2분기 어닝쇼크 우려까지 확산

코로나19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상위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크게 3업종으로 분류된다. 정유·중공업·항공이다. 이들 업종에 코로나19는 그야말로 재앙과 같았다. 업종에 속한 다수 기업이 올해 1분기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12월 결산법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가운데 연 결기준 올해 1분기 가장 큰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무려 1조775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28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나 국제유가가 폭락한 데다 재고 관련 손실이 급증하며 천문학적 적자를 보게 됐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 급락으로 인한 석유 사업부와 화학사업부의 재고 평가 손실이 1조원 반영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 감소와 정제 마진 부진이 결정적”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오일(S-Oil)도 상황은 비슷했다. 1조7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정유업계 2곳이 가장 큰 영업손실을 본 코스피 상장사 1·2위로 기록했다.

중공업과 항공업도 전례 없는 위기상황을 맞았다. 현대중공업지주는 487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SK(-9227억원)에 이어 영업이익 하위기업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영업이익 하위 20위에 이름을 올린 중공업 상장사만 무려 7개다. OCI(-929억원·8위) 롯데케미칼(-859억원·9위), 효성중공업(-559억원·14위), 삼성중공업(-478억원·15위), 대한유화(-457억원·16위), 현대제철(-297억원·20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항공사들은 모든 기업이 영업이익 부문에서 적자전환했다. 아시아나항공이 2920억원의 영업손실을 보며 가장 큰 적자를 본 항공사로 조사됐다. 대한항공(-827억원), 제주항공(-657억원), 에어부산(-38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주사도 적자를 피할 수 없었다. 제주항공을 보유한 애경그룹의 지주회사 AK홀

(올해 1분기 유가증권시장 영업의 하위 20개사)

회사명	영업이익	
	2019년 1~3월	2020년 1~3월
SK이노베이션	328,726	-1,775,186
S-Oil	270,366	-1,007,259
SK	1,285,198	-922,718
현대중공업지주	144,454	-487,234
LG디스플레이	-132,018	-361,919
아시아나항공	7,160	-292,017
강원랜드	125,096	-186,774
OCI	-40,144	-92,927
롯데케미칼	297,790	-85,994
대한항공	230,809	-82,792
CJ CGV	23,515	-71,619
호텔신라	81,688	-66,813
제주항공	56,970	-65,726
효성중공업	21,696	-55,969
삼성중공업	-33,337	-47,836
대한유화	56,921	-45,744
에어부산	5,494	-38,512
AK홀딩스	97,400	-34,581
한진칼	59,850	-33,977
현대제철	212,431	-29,702

단위:백만원 /한국거래소

딩스와 대한항공 지주사 한진칼은 각각 345억원, 3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적자행진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2분기도 어닝쇼크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은 “코로나19 타격은 2분기에 본격화될 것”이라며 “고정비성 원가를 얼마나 감축했는지가 변수다. 최근 결정된 자구안과 정부 지원으로 단기 유동성과 차입금 상환 리스크가 완화된 것이 긍정적이나 수요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재무구조의 추가 악화를 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 포스코인터, 국내 강소 부품사 수출 지원

수출입은행·서울보증보험과 MOU  
중소·중견기업 수출 시장 개척 협력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과 협력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 부품사 지원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19일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수출입은행, 서울보증보험과 국내 강소 부품사의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신금융지원 상생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돕고자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왼쪽부터)과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김상택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사가 19일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강소 부품사 금융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신금융지원 상생플랫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3사가 플랫폼을 통해 자체 해외 기반이 약한 국내 강소 부품사를 비롯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시장 개척을 돕고,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금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부품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및 현지화 사업에 힘을 보태고, 필요 시 공동투자로 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몸집 줄이기 나서는 쌍용차

### 평택·창원공장 외 모든 자산 매각 검토

쌍용자동차

자산 매각시 확보 자금 1000억 이상

쌍용차가 회생을 위한 몸집 줄이기를 본격화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서울 구로 정비사업소 부지를 비롯해 인제개발원과 천안 및 영동 물류센터 매각을 검토 중이다. 사실상 평택 공장도 창원공장 등 생산 시설을 빼고 모든 자산을 매각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쌍용차는 경영난에 따른 유동성 문제를 겪었으며, 코로나19로 모기업인 마힌드라로부터 약속받았던 자금 수혈도 어렵게 되면서 생존 방안을 고민해왔다. 쌍용차가 자산 매각으로 확보할 자금

은 1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특히 구로 정비사업소 부지는 구로역 인근 개발 기대로 시세가 1100억원 이상으로 올랐다고 알려졌다.

쌍용차는 구로정비사업소를 매각한다고 해도 ‘세일즈 앤드 리스백’ 방식으로 3년간은 임대 형태로 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쌍용차는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지원을 요청하고, 오는 7월 만기되는 900억원 규모 대출 상환 유예 신청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정부 지원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산업은행과도 만기 1개월 전인 6월에서야 협상을 통해 대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김재용 기자 juk@